

2026년 5월 11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황지원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80장
기도	한상문1 재적안수집사
성경봉독	신명기 19:2~7절
찬양	하나님 사랑은
설교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70장
축도	설교자

80장 -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2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3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4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후렴 주 앞에 내가 었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70장 - 피난처 있으니

1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2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3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 검이 쓸데없네
 4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롭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 담당

5/12(화)	5/13(수)	5/14(목)	5/15(금)	5/16(토)	5/18(월)
석승진 재적안수집사	류진학 안수집사	이기형 안수집사	김홍봉 안수집사	박성원2 안수집사	김성재1 안수집사

☞ 오늘의 말씀 < 신명기 19장 2~7절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췄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5월 11일(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시고, 새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죄와 죽음 앞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쉼과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말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사,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새문안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당회와 제직,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재를 풍성히 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북녘 땅에도 막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남과 북이 주님의 평화 안에서 회복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